

17. 21世紀 共同體 生活文化育成을 위한 다학제적 方案摸索 學術심포지엄(Ⅳ)

資料提供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지난 6월 28일 신라호텔 국제회의장에서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소장 : 문수재)와 삼성건설(주)(대표 : 최훈)의 공동주최로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방안모색 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날의 주제발표내용을 5차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가족문화 및 이웃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유 영 주(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사회 제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미래주택개발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은 “삶의 질”을 연구하는 가정학 전공자로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항상 제기되는 주거문제들을 논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만 그 중에서 “모여사는 공동의식”이 없다는 점 “주거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김진애, 1994), 본 주제는 더욱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주택은 단지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의 제도(in-

stitution)이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은신처의 제공이 주택의 소극적 기능이라면, 그 적극적인 목적은 한 인간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환경, 다시말하면 공간의 사회적 단위를 창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형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어느 하나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본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문화요소의 산물인 것이다(이계목 역, 1985).

이렇듯 집(주택)이란 우리의 삶을 담는 용기로써 집 자체는 물질로 이루어진 조형물이지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사회의 총체적인 환경과 그것을 인식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 그들의 생활과 이념, 제도 등 모든 영역의 문화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강영환, 1992) 미래주택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육성을 위하여 주민공유공간의 필요성과 내용을 실제적으로 연구하신 발표자의 논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토론자로서 몇가지 점을 부언, 지적하고자 한다.

1. 가족문화와 주민공유공간간의 관계 측면

주택이 우리의 삶을 담는 용기라 한다면 주택개발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규명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가족문화에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설정하여 그것을 주민공유공간에 연결하여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연계성이 명확히 지적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문화와 가족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떠한 가족문화를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 한국사회의 가족문화와 가족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 정의된다(이광국, 1980).

가족문화란 가족생활을 통하여 얻게되는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적인 생활양식(life style)과 잠재적 의식 태도 가치관을 통틀어 가족문화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문화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혹자는 한국 가족문화의 위기라고도 지적하고, 한국가족에는 가족문화가 없다고까지 혹평을 한다. 가족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도덕, 법률, 관습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었을 때 그것이 축적되어 그것의 산물로 가족문화가 형성된다면 현재 한국가족에는 가족문화부재라는 말도 납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전통적 가족문화와 서구적 가족문화의 혼재, 2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흔히 한국 가족의 문제를 논할 때 핵가족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가족문화가 파괴되고 개별화, 개인화, 단절화되는 가족관계에서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부재라는 심각한 가족위기를 지적하고 이는 곧 사회의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기능론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근년에 자주 발생하는 가족문제를 접할 때마다 가족문제는 전체사회의 차원에서 일탈 및 범죄의 상황과 관련하여 사회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대한 가족문제 대처방식은 복지정책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모아지며, 정책적으로는 pro-family 운동을 통해 도덕적인 가족을 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적 강화로 모아진다. 이는 가족을 사적(私的)인 영역으로 규정하여 문제의 사회적 요인을 은폐하고 개인들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문제해결의 책임을 개별가족에게 떠맡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문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가족생활의 문제와 사회구조와의 관련을 중시하여 어떠한 사회구조의 모순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그로 인해 가족구성원의 고통과 이를 치유하는 방식과 해결주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족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변화와 문제가 발생하는 Mechanism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문제의 계급성·성별·연령별 차별성을 분류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격한 자본주의 경제성장에 따른 계급론적 여성학적 접근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빠른 변화와 가족의 변화와의 격차에서 나타나는 “가족지체”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사회가 미쳐 뒤따르지 못하는 “사회지체”가 모두 가족문제의 원인이 되겠으나 이제는 더이상 정부주도형, 기업주도형의 신권위주의적 사회구조가 개별가족의 문제를 자주 야기시키는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될 것이다.

2) 미래가족은 어떻게 변화 될 것인가?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미래가족의 모습을 예측해 보는 것은 가족생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한자녀 낳기가 확산되어¹⁾ 가족구성원의 수는 계속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역반응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자녀수를 증가 시키거나 늦둥이를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성비의 불균형(1990년 현재 0~4세 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의 비는 111명 이다)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될 것이다.

(2) 결혼 형태는 자유 연애혼이 확대될 것이고 계약 결혼도 나타날 것이다. 신부감 비울격감으로 “연상의 아내”도 나타날 것이다. 결혼은 누구나 하는 것에서 선택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다(중앙일보, 1992. 7월 1일자).

(3) 가족구성의 변화는 1세대 2세대 가족은 증가되고, 3세대 4세대 가족은 감소될 것이며 단독가구(미혼독신자, 노인독거자)는 증가될 것이다.

(4) 가족형태는 다양화 될 것이고, 독신자 가족(미혼자, 사별한 독신노인, 이혼후 독신), 동거가족, 자발적 무자녀가족, 편부 편모가족, 혼합가족(blended family), 비혈연가족, 수정확대가족, 수정핵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서서히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동성혼 가족이나 복혼가족 등의 출현은 심각할 정도의 증가는 없을 듯하다.

(5) 여성의 직업 형태가 다양해 질 것이고 따라서 맞벌이 가정은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주부의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주부의 수입과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 할때는 여성의 취업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가족해체와 연결된다.

(6) 가족관계는 부부중심형, 애정적 평등적 가족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부부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이혼율은 증가될 것이다.

1) 1990년 현재 1인당 출산율 1.63이다(세계평균 3.7, 선진국1.9). 2000년대에는 한 자녀 갖는 가정이 보편화 될 것이다.(중앙일보 1992. 7월 8일자).

(7) 부모 자녀 관계는 민주적 수평적 관계로 될 것이고, 성차별적 관계는 완화될 것이다. 한 자녀 갖기가 보편화 되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계속 유지, 강화될 것이다. 단, 지나치게 자녀 중심적,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경우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약화될 것이다. 부모 자녀간의 갈등은 세대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8) 노부모 성인자녀관계(고부관계)는 부부관계보다는 약화될 것이고 따라서 갈등관계는 피하게 될 것이다. 의존적, 부양적 관계보다는 독립적 관계로 될 것이다. 단, 노부모의 경제력이 없을 경우 부담 관계와 소외감을 갖는 관계가 될 것이다.

(9) 가정관리에 있어서는 이상에 열거한 가족형태에 따라 가정관리 및 소비생활 유형이 달라질 것이다.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가사노동 자체는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 자체의 감소는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10) 대량생산의 기성복시대에서 주문생산에 의한 소량생산으로 개성창출의 의생활 시대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피복비는 다층화 될 것이다. 피복비를 절감시키고 개성 창출을 위한 자가재봉도 일부 늘어날 것이다.

의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의생활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의생활로 인한 문제도 생겨날 것이다(피복위생, 세탁으로 인한 환경오염 과소비 문제).

(11) 보다 영양가 있고 품질 좋은 각종 인스턴트 식품이 대량 생산될 것이다. 균형있는 식단이나 식이요법에 관한 정보도 컴퓨터 작동으로 빠른 속도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요리(home made food)도 귀중하게 여겨질 것이다.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결여될 경우, 과잉 영양이나 영양결핍문제 무절제한 식생활로 나타나는 건강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한국가정의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할 경우 국적없는 식생활, 식생활 과소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12) 주택 보급율은 향상되어 내집 마련의 꿈은 2000년대에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2000년 초에는 대도시 83.6%, 지방 대도시 89.9%(건설부 예측, 중앙일보. 1992)가 될 것이다. 집짓기전 건축의 타당성 조사로부터 만족도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진단할 수 있을 것이고, 한 빌딩안에서 가정과 직장, 여가까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주택도 등장할 것이다. 아파트 안에 호텔이 있어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고 상가나 부대시설

이 같은 빌딩속에 있어서 쇼핑을 손쉽게 할 수 있고 자녀의 유치원도 옥상에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장롱없애기도 일반화 될 것이다. 주거정책과 개인과 가족의 주거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주거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있다.

(13)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증가하는 노령화 사회에서는 실버산업이 급격히 발달할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전용 병원 노인패션용품의 생산, 노인전용 백화점도 생길 것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컴퓨터의 도움으로 홈 쇼핑도 가능해 질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데이케어센터, 요양업 등이 나타날 것이나 유료양로원의 설립은 21세기에는 아직 환영받지 못 할 것이다(한국인의 가족가치관). 출산율의 저하로 자연인구증가율이(2000년에 0.83%, 2020년에 0.03%로 추정) 마이너스로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될 것이므로 노인정년은 연장될 것이다.

(14)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 산업과 통신산업이 결합되어 밥짓는 일을 비롯해서 세탁,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자동적으로 처리해 주게 되며 이를 이용해 화재 도난 등에 대한 보안 방재 기능은 물론 안방에서 쇼핑과 은행업무까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원격 검색, 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해 질 것이다.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올바른 지식이 요구된다.

(15) 컴퓨터 기술과 정보망이 고도로 발달할 경우 가정과 일터가 통합될 것이다. 가족이 곧 일터가 되는 재택 근무자의 비율이 점차 늘게 될 것이다. 일인(1人) 자영업자도 나타날 것이고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시제(正時制)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근무나 교대제 근무, 자유시간제, 2인1조 1직업 근무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직의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다. 결혼 가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할 경우 가족해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16) 정보화 사회에 나타날 문제로 직업의 정의가 달라지고 직종이 다양해질 것이다. 센스리더, 개성창출전문가, 색채전문가, 여가상담자, 식품유통전문가 식품품질관리사, 여행전문가, 시간관리전문가, 가정문제상담자, 알콜중독치료사, 불면증치료사, 음악치료사 등(가정학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이 많이 나타남).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때 앞으로의 가정 및 가족생활 현상은 다양화 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주체성이 결여된 다양화와 개성화는 오히려 혼동과 이기적 과소비적 성향이 나타날 것이고, 컴퓨터 작동의 지식과 능력이 결여되고 빠른 정보에 누락될 경우 상당한 지체성·좌절성을 갖게 될 것이다(유영주, 1994).

3) 어떠한 가족문화를 육성할 것인가?

우리의 대부분은 산업사회의 사회체계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란 고도의 물질문화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인간적 감성이 중시됨으로써 산업사회의 작동원리 자체도 분산화, 다양화, 개성화를 지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탈공업화로 향하게 된다. 정보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 사회를 후기 산업사회라고도 하는데 후기산업사회로의 낙관적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관과 새로운 규범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가치관이란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반적인 의식구조를 말한다.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증대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사회의 자원들이 정당하게 배분된 사회를 향해가는 구조적 변동과정”을 사회발전이라고 한다면(장상희, 1982. 조은정, 1994 : 8에서 재인용) 후기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 측면의 과업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은 인간의 성장발달의 근원적 집단이고 사회형성의 기초적 집단이다. 현대인의 욕구가 “친밀한 관계에서 얻는 순수한 기쁨(행복)”이고, 인간의 본질이 개인성 발달욕구와 상호작용적(의존적) 욕구 추구라고 볼때 이것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가 가족인 것이다(Olson, 1994). 가족이 인간 개개인의 사랑과 안정,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적 기능을 갖고, 그 욕구가 인간본질의 욕구와 부합되는 한, 가족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인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은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문화는, 첫째로 건강한 가족형성에 있다. 건강한 가족이란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도덕적으로 건강하여 하나의 집단 체계로서 즉 공동체로서 균형은 가지고 있는 가족이다.

즉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성장발달이 이룩되며 사랑과 동반자적 관계, 공동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도덕적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집단을 말한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개개인들은 자기의 가족을 선택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라는 고정된 단일체가 아니라 가족들(families)이라는 다양성으로 의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가족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가족에 대하여 폭넓은 시각-즉 사회·경제적·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체계의 필수적 통합부분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Gittins, 1985).

사회가 개방화·개인화가 될수록 인간적 사랑과 유대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족문화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한국가족의 정체감 확립을 위하여 한국가족의 전통문화, 규범을(孝·禮) 현대가족생활문화에 재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적 가족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현대 한국가족의 핵가족화가 된다고 해도 일시적 부부가족형태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노후에 같이 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에서 자주 찾아뵙는 그런 형태의 “수정적계가족”과 “인접별거”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확립시킬 수 있는 요소라 본다.

4) 가족문화, 이웃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하여 주민공유공간에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21세기를 향한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해지는 건강한 가족들(families),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들, 한국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추구하여 전통적 규범과 현대적 규범을 조화시키는 가족들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문화육성과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야 할 것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생활화 생애교육-유아교육, 청소년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중·노년기 교육, 지역봉사 환경보호 등-가족상담, 소비자상담을 통해 가족문화와 지역문화가 연계된 공동체 생활문화육성, 맞벌이 가족의 보편화에 따른 가족지원, 가족기능 보충적 시설 등이 주민공유공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공유공간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기관시설보다는 가족문화를 육성하고 핵가족의 문제를 예방·치료·지원하는 체계가 주민공유공간에 반드시 포함 운영되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문화가 주거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때 가족문화는 주거문화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 주민공유공간의 활용적 측면

1) 공간 환경적 측면

〈표 1〉 가족문화 및 지역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주민공유공간의 내용

현재의 가족문제	추구하여야 할 가족문화	주민공유공간에 포함되어야 할 공간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가치관의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가치관의 확립 • 가족의 본질·당위성의 확립 • 개인주의, 가족주의의 조화 • 상호존중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가치관을 확립시킬 수 있는 교육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간의 단절 • 의사소통의 결여 • 화합, 타협, 단란시간의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공동체 의식 확립 • 의사소통 기술 • 대인관계 훈련·타협·용서 • 관용의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대화의 광장 • 토론·세미나를 위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간의 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직계가족 • 수정핵가족 • 인접별거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단지내에 3세대 가족이 살 수 있는 다양한 주택 모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현대의 규범의 혼재 • 2중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과 현대의 조화 • 조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족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가족을 위한 자녀양육 • 가사역할 및 노동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탁아·양육교육센터 영아원, 유아원, 유치원, 학동기, 청소년기 자녀교육센터 (미국의 경우 국민학교 자녀는 4-Hclub, 청소년기 자녀는 지역사회의 Youth Hall에서 지도함) • 공동세탁, 공동취사, 공동구매 등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가족의 문제 • 가족문제의 발생 • 이혼율의 증가 • 청소년 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가족관계의 균형 • 개인과 가족의 공동 번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상담소, 가족생활 교육센터 • 소비자상담·소비자 교육센터 • 소비자 정보 및 고발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정부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로 주민을 위한 가족·주거정책 • 함께 발전하는 가정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과 정부와의 대화장, 회의실

연구자는 주민공유공간에 있어서 신규주택단지개발의 경우에 한정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공유공간의 창출방법과 법적 근거 확립이 문제라고 본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해결방안으로서 분양가 자율화를 통하여 주민들이 공유공간 건설비를 일정한 부담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단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또한 주민공유공간의 문제는 기존의 주택단지와 집합주택단지에 있어서도 공동체 생활 문화 육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도보권에서 제공되어야 진정한 지역문화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를 주민지원센터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동사무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가족생활지원센터, 탁아방, 독서실, 장례, 혼례 등의 예식공간, 공동식당, 상담실, 게스트 하우스, 행정센터-동사무소, 대서소, 복덕방, 구인구직센터, 세무상담소, 보건소- 등이 있어서 주민생활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행정의 중심점이 대도시의 구청과 소도시의 시청이라면 동단위의 지역센터가 생활의 중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프로그램 운영 측면

연구자는 공간환경적 측면에만 언급하고 있는데 공간환경이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더라도 운영프로그램과 운영요원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일 수 없다.

전문가 양성과 시간제 유급 근무자,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가능하다. 생활지도자, 가정복지사, 생활관리사, 보육사, 상담사 등의 전문인 양성이 되어야 공간환경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간제 근무자, 자원봉사자도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노인가족생활지원-(세탁, 조리, 목욕, 구매, 의료 등 각종 생활 지원)-취업주부 지원, 저소득층 가정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 측면

신규 주택단지 개발시의 주민 지원 센터 설치법(동단위, 단지단위)이나 기존주택지역의 주민지원센터 육성법 제정 등으로 법적 근거를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자체 실시 후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역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해 장기 청사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간이 주거를 만들지만 다시 그 주거가 사람을 만든다는 처칠의 말처럼 주거와 인간의 상호 영향성은 명백하다.

지난 30여년간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사회발전에 긍정적 면도 없지 않으나 가족문제와 마찬가지로 주거문제에 있어서도 관주도형, 기업주도형의 신권위주의 체제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부재했다고 본다.

연구자도 시행착오라 표현지만, 앞으로는 더이상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간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이 동시에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가족문제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몫이 크다고 본다.

바로 오늘의 심포지엄이 주거정책의 기초자료로 꼭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다.

한국 여성문화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이 은 순(한국 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여성문화는 대체로 생활문화, 직업문화, 여가문화로 구분지을 수 있다. 생활문화란 가사노동, 가족구성원간의 융화, 자녀교육, 가사결정권, 소비경제 생활 등의 다양성을 갖는 것으로 이는 생활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여성이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둘째로는 직업문화인데 산업의 발달과 의식의 변화에서 영향받아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지식을 자산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또 기술과 힘을 자원으로 노동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는 그리 개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육아문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속박, 노인문제(병고)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分”에 적합한 직업 선택이란 어려운 실정이며 그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여가문화란 흔히 중산층 고학력 여성들에게서 평생교육, 취미생활, 교양의 섭렵 등으로 꼽을 수 있으나 이는 자칫 낭비문화와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교통의 발달과 TV 일반화의 보급으로 인한 고소득층 문화의 무절제한 유입은 저소득 빈곤 여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그들의 실제 생활수준과 비교 소비성에 편중되어 경제력에 바탕한 부의 과시가 그들을 심리적으로 더욱 퇴락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신적 건강을 병들게 하고 있다.

21세기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적 변화의 주도적 역할은 여성의 몫이며 그것을 감당하는 주역으로서 일할 권리와 기회, 가치와 의식을 제고하여 스스로를 계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남녀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나 경제활동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많은 여성을 직업현장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법의 불이행,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에서의 불공정성 등으로 의욕적으로 일할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여성 취업의 증가현상을 뚜렷히 보이고 있다. 그것은 노동력의 수요증가와 직종의 다양화로 취업 기회가 많아졌고, 여성의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하여 자아실현 및 사회적 지위취득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¹⁾

또한 가전기기 보급의 일반화로 인한 사용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탁아시설, 교육기관 등이 가족기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회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어느 정도 마련되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켰다.

오늘날 여성문제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는 농촌여성과 도시빈민여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그들의 지위향상과 생활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저임금·저소득 근로여성의 복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위생시설, 휴게실, 식당 등의 적합한 공간설치로 작업능률의 효과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농촌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쾌적한 노동환경, 세계상의 혜택을 도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도시의 고학력 전업주부들의 여가 이용은 자기존중과 자립심의 향상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감안한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는 문화사업의 일환으

1) 주제발표본문 P.21

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교육의 도장이 그들을 흡수하여 긍정적 성과도 있으나, 반면 부유층의 유희시간 소비로 인한 낭비문화로 전락하고 있거나 않는지 우려된다.

세째로는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의 제고와 확대방안으로 여러 단체에서 연구,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여성 스스로도 정책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남성위주의 정치적 역할과 그 운영상의 불합리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참여 의식을 갖는다면 미래사회는 더욱 보람될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주거공간 배치를 보면 상층민과 하층민으로 구분 지어 볼 수 있다. 상층민의 주거공간은 폐쇄공간과 개방공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개방공간은 가부장 이하 남성위주의 빈객접대나 대가족 남성의 공동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공간과, 노인을 위해 완전히 개방된 별채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을공유의 노인문화 공간이며 탁아, 자녀교육을 담당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여기는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도록 안채와는 차단되는 배치를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문화를 향유하였다.

폐쇄공간은 대가족제도 하에서 여성들의 전용주거용으로 여성문화 형성의 도장이 되었다. 이곳에서는 대가족의 취사는 물론이러니와 침선, 직조 등의 힘겨운 노동도 하였다. 그리고 구비전승되어 내려오는 규방문화의 전래 교환의 온상지였다.

하층민 여성들의 문화공간은 특별히 없었으나 빨래터, 우물가, 방앗간 등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의 또래 여성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마을 소식이나 문제해결, 여론의 수렴도장이 되어 공동체 생활의 이탈시 소외시키거나 축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힘이 그 마을의 생활방향을 좌우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자들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하여 여성들의 집회를 막았으나 생활관습상 물길는 시간의 공통성, 농업생활에서의 협동성, 즉 집단 취사 및 급식 등의 생활문화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 또한 화전놀이 등의 허락받은 모임을 통해 스스로의 고통을 털어 놓아 자문을 구하거나 공동의 문제점을 모색하는 슬기 있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말이어가기, 민담, 속담, 은어 등을 통해 개방공간으로서의 여성들의 문화의식에 공헌하였다.

하층민의 주거공간은 주식의 단순 공간으로 항상 개방되었다. 그리하여 하층민 남성들은 공유공간이 필요할 때마다 마을의 집회소가 되었던 느티나무 밑이며 공회의 장소가 되어 그곳에서 마을의 유희 노인들이 마을의 탁아를 맡기도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가옥구조 변화는 서구 영향을 받아 공유집합주택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성과는 대가족제에서 핵가족의 분화를 촉진시켜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첫째로 그것은 간결할 생활문화로 인하여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시간을 많이 줄여 주었으며 평면구조의 주방 배치는 남성으로 하여금 쉽게 주방노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의 취업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공유주택에 생활하는 여성일수록 직업여성이 적고 전업주부가 많아 이같은 전업주부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을 만드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 공간으로는 탁아소, 공부방, 도서관, 상담실, 정보화랑, 휴게실, 공동놀이방, 실내정원, 공동작업장, 공동취사실, 공동세탁실, 공동창고, 공동화장실, 다목적 행사실, 체육시설공간 등이 요구된다. 전업 주부의 유희노동력은 이상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지도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이상의 공유공간 중 탁아소, 공부방, 도서관, 공동놀이방, 공동세탁실, 공동취사실 등은 직업여성의 자녀교육과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다. 이외에 정보화랑, 휴게실, 실내정원, 다목적 행사실, 체육시설공간 등은 여성의 문화공유공간으로 필요하다.

또 저소득 근로여성들의 여러가지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대졸 전업주부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여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담실에서는 근로 여성들을 위한 불이익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기업주를 면담 알선하는 일을 주도한다.

지자체 실시 이후 지역 내부 문제의 초점을 찾아내어 공동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독서와 토론을 통하여 국가 정책진단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의식을 고조시키며, 공동의 공간은 쾌적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여성의 문화생활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한편 위생과 체력단련시설은 건강상담, 체력단련 등을 통하여 여성문화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또 다목적 행사실의 공간을 배치하여 명사를 초청 시국강연, 교양강좌를 통해 여성문화를 함양한다.

이상과 같은 주민 공유공간을 통하여 여성의 유희 노동력을 활용하면 각기 맡은바 역할을 다함으로써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문화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 지향적으로 흐르기 쉬운 중산층 전업주부들을 긍정적 삶과 잠재능력 개발에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전통사회에서의 가부장적 체제하에서도 굳굳히 지켜왔던 여성의 생활문

화 즉, 여론의 수렴, 마을의 안녕, 공동체의 두레정신 등이 현대사회에서도 더욱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문화 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최 성 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문화란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한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일정한 양태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문화란 한국사회 노인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양태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데는 여러가지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담는 그릇이 되는 주택과 그 근린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집단 또는 공동체가 핵심적 요소가 된다. 문화는 집단적인 현상으로 집단속에서 개인들이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발전된다(Anderson & Carter, 1990).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공동체는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현재 도시인구가 전인구의 75%에 이르게 되었고 도시화는 앞으로 더욱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히 도시의 주거시설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와 같이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주거단지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단지들은 주택 건축의 기술적 측면과 편리성에만 치중하였고 주택단지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들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여 결국 현대사회의 익명성을 강화시켰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서구적 도시화, 이와 연관된 외래문화의 파급, 택지의 공급제한과 가격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거공간을 집합주거화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단지 형태가 가장 대퍼적인 주거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한 도시의 거의 모든 주택을 아파트 단지만으로 형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아파트단지 형의 집합주거는 2000년대에 이후에도 가장 대표적이고 주된 주거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는 더욱 급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수와 비율은 크게 증가되고 있고 노인들의 가족형태도 별거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를 가진 노인전용 주택의 수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과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택공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 또는 주택단지나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단지는 우리사회에서 거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집합주거가 2000년대의 가장 대표적 주거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합주거는, 노인 전용 주거단지든 아니면 노인세대가 다수 포함된 일반주거단지든, 단순한 물리적 생활의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등한시 되었던 공동체 생활문화의 장이 되고 나아가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집단주거 단지에는 다양한 공유공간이 확보해야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2. 노령인구의 변화 추이

집단주거에서의 노인문화 육성은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 노인문제발생과 직결되는 고령화 속도와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추이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의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빨랐고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에 이르는데 걸리는 기간이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이 85년, 영국이 4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하여 한국은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표 1〉 참조).

〈표 1〉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국 가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도달년도		소 요 년 수
	7%	14%	
프 랑 스	1967	1980	115
스 웨 덴	1890	1975	85
미 국	1945	2020	75
영 국	1930	1975	45
독 일	1930	1975	45
일 본	1970	1996	26
한 국	2000	2023	23

* 한국의 14% 도달년수는 추정된 UN자료에서 추정된 것임

자료 : 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 고령자문제의 현상과 대책, 1984, p.6

UN. The Sex and Age : Distribution of Population, 1991, 234-235

〈표 2〉 한국국민의 평균수명,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지수 추이

연 도	평균수명			노인 인구(60세 이상)			노인 인구(65세 이상)		
	평균	남	여	수(천명)	비율(%)	부양지수	수(천명)	비율(%)	부양지수
1960	55.3	53.0	57.8	1,383	5.5	10.1	823	3.3	6.1
1970	63.2	59.8	66.7	1,705	5.4	10.3	1,039	3.3	6.1
1980	65.8	62.7	69.1	2,268	6.2	10.1	1,456	3.8	6.2
1990	71.3	67.4	75.4	3,300	7.7	11.6	2,144	5.0	7.2
2000	74.3	71.3	77.4	4,984	10.7	15.6	3,168	6.8	9.4
2021	77.0	74.9	79.1	9,268	17.7	27.3	6,625	13.1	18.4
2025	—	—	—	11,175	21.6	35.1	7,498	14.5	21.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21), 1991

UN, The Sex and Age : Distribution of Population(1991 : 234-235)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평균수명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60년에 남자 53세 여자 58세의 평균수명이 1990년에는 각각 67세와 75세로 되었고, 2000년에는 71세와 77세로, 2021년에는 75세와

79세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노인을 흔히들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당분간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에는 5.5%였는데 1990년에는 7.7%가 되었고, 2000년에는 10.7%, 2021년에는 17.7%가 될 것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960년에는 3.3%에 불과했는데 1990년에는 5.0%가 되었고, 2000년에는 6.8%, 2021년에는 13.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참조).

3. 2000년까지 예상되는 노인의 욕구와 문제

현재 및 2000년 초반까지 예상되는 노인문제는 대체로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역할 상실 및 여가 문제 (4)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다음에 이 4가지 유형의 노인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경제적 문제

(1) 노령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소득보장의 미흡 : 산업화사회에서 퇴직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제도이므로 퇴직후의 경제적 보장은 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와서야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노령연금(국민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2008년까지 60세 이상이 되는 노인들은 정상적인 노령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 퇴직금의 미수급 및 수급액수의 과소 : 현재 노인인구의 극히 일부(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원이었던 자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2% 정도)를 제외하고는 노령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가장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의 적용도 1992년까지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아(근로기준법상의 의무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로 퇴직한 사람들 가운데 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또한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도 많다.

(3) 55세의 조기정년으로 인한 수입 감소 : 조기정년퇴직 특히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

어 있는 55세에의 정년퇴직은 개인의 가족생활주기상에 가장 지출이 많은 시기에 이루어 짐으로써 가계에 커다란 타격이 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정년연장을 쉽사리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기정년에 의한 경제적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4) 높은 노인 빈곤인구 비율

①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의 비현실성 :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인구에 대한 빈곤인구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65세 이상의 빈곤인구가 전체빈곤인구 중에 차지 하는 비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빈곤인구가 국가 전체인구의 3.3%밖에 안된다는 통계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이다. 빈곤인구 비율이 이렇게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이 실제의 최저생계비 수준보다 대단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준에 의하면 <표 3>에서 보듯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중의 빈곤인구는 1995년 현재 약 10%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 표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1991년 이후의 여러 표본 조사자료(일본총무청장관관 방노인대책실, 1991; 이가옥 외, 1993년; 이가옥 외, 1994)로 추정해 보면 적어도 60세 이상의 20%, 65세 이상의 25% 정도는 빈곤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수준도 실제 최저생계비의 1/2도 못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경제기획원, 1992) 생활보호의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생활보호 대상자 수 및 비율의 추이

년도	생활보호대상자(A)	65+생활보호대상자(B)	B/A(%)	A/전인구(%)	B/65+인구(%)
1990	2,119,404	306,471	14.5	4.9	15.1
1991	2,471,979	327,576	13.3	5.7	14.8
1992	2,053,228	323,367	15.7	4.7	14.1
1993	1,783,545	316,594	17.8	4.0	13.4
1994	1,481,307	278,364	18.8	3.3	11.8
1995	1,499,302*	250,000	16.7	3.3	9.8

*매년 생활보호대상자로 배정된 인원중에 실제 보호인원은 평균 85.4%(1991~1994년)였으므로 1995년의 실제보호 인원은 배정인원 1,754,904명의 85.4%인 1,499,302명으로 추정하였음.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빈곤노인의 비율은 2000년

대 초반까지 20~25%로 남아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② 주택부조의 미비

현재 공적부조 대상자에 대한 급여에 주택부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적부조 대상자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생활보호 대상자의 노인주택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예를 들면 벽에 구멍이 뚫여 있는 집, 연탄가스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연탄을 피워놓고 겨울에 문을 열고 잠을 자야하는 집, 난방시설이 없는 집 등이 상당히 많다. 이들이 생활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전세 및 월세가 대부분인데 1994년 한국 노인복지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택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활보호비용의 지급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잘 알 수 있다. 1994년 현재 서울의 경우를 보면 전세는 보증금으로 평균 592만원을 지불하고, 월세는 보증금 평균 227만 원에 평균 5만 2천원을 지불하고 있다. 국가보조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1994년 현재 국가의 생활보조금 65,000원으로 월세 52,000원을 내고 나면 13,000원으로 식생활과 의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표 4〉 노인의 가족형태 변화(단위 : %)

연도 \ 가족형태	1981 ¹⁾ (N=400)	1985 ²⁾ (N=3,704)	1988 ³⁾ (N=3,577)	1990 ⁴⁾ (인구조사)	1993 ⁵⁾ (N=2,056)
기혼자녀와 동거	69.1	64.2	54.8	?	?
				72.4	53.8
미혼자녀와 동거	11.0	23.5		?	?
노인 단독 가구	19.8	20.5	22.9	25.5	41.0
(배우자와 동거)	?	?	?	(17.2)	(29.1)
(독거)	?	?	?	(8.3)	(11.9)
기 타 가 구	—	1.3	?	2.1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김태현(1981 : 43) 2) 임종권 외(1985 : 24) 3) 이가옥 외(1989 : 44)
 4) 통계청(1993 : 54) 5) 이가옥 외(1993 : 39)

(5) 주택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와 노인전용주택육구의 증대 : 현재의 노인주택은 노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택이 대단히 많다. 일본정부의 5개국 비교조사(일본총부청장관관방

노인대책실, 1991)에 의하면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어렵다(46.7%), 집이 노후되고 파손되었다(46.0%), 집안의 구조와 설비가 노인이 사용하기 어렵다(39.3%), 냉난방장치의 사용이 어렵다(31.9%)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67.9%나 되었다. 그리고 노인들 가운데 노인전용주택을 원하고 있는 노인은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도 역시 노인전용주택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의 38.0%가 노인전용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필자(최성재, 1992)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노인층(20~59세) 응답자의 44.9%가 자신들의 노후에 노인전용주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이든 노인들의 건강정도와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구조를 가진 노인전용 3세대주택 또는 노인세대 전용주택에 대한 욕구가 앞으로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직결된다(〈표 4〉 및 〈표 5〉 참조).

〈표 5〉 비노인층의 노후 자녀와의 동거/별거 희망 여부

연령계층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동거/별거 희망구분					
동거하고 싶다	82(24.4)	103(29.1)	48(24.9)	25(34.2)	258(27.0)
별거하고 싶다	254(75.6)	351(70.9)	145(75.1)	48(65.8)	698(73.0)
계	336(100.0)	346(100.0)	193(100.0)	73(100.0)	956(100.0)

2) 건강보호 문제

(1) 고령화에 따른 전반적 건강악화 : 노인들의 질병구조가 만성적이고 퇴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는 것과 노인의 간호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문제의 가장 심각한 한 측면이 될 것이다. 한 표본조사(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 1991)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한국노인의 42% 정도는 질병이 있어 가끔 자리에 눕거나 거의 종일 누워 지낸다고 했는데 다른 선진국의 노인들에 비하여 훨씬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2) 의료비 부담의 과중 :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1인당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거의 2배가 되었고 1건당 진료비도 비노인층의 거의 2배가 되었다.

(3) 간호보호의 어려움 : 고령화에 따라 거동불능노인과 치매노인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의 8.1%정도, 65세 이상 노인의 8.7%는 거동을 잘 못하는 상태에 있다(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 1991). 특히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국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일본후생통계협회, 1992) 치매 출현율은 65세 이상의 전노인의 6.7%이며 이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1995년 현재 노인 65세 이상 노인중 약 170만명이 치매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것이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진국에서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의 거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너무 부족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자신이 간호보호를 받거나 가족들이 노인을 간호보호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응할 만큼 많이 생긴다고 해도 노인의 간호보호를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가족수의 감소, 여성의 취업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서비스(예를 들면 간병인 서비스, 가정방문 간호사 서비스,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미비 등으로 건강보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필자(최성재, 1992)가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노인보호를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를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보호해야 할 경우 남성 응답자의 82.3%가 배우자로 하여금 돌보게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앞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보호에는 가족보호자로 기대되는 여성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고 동시에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보호 받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역할상실과 여가활동 문제

(1) 여가활동의 미비 : 퇴직은 자신의 가치와 자아상을 뒷받침해주는 직업역할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노인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뚜렷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활동이나 여가활동이 없으면 자아상실감은 더욱 커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기업 및 사회단체의 퇴직연령은 55세로 되어 있어 정년퇴직후의 사실상의 노령기는 더욱 길어지고 있지만 여가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낼수 있는 노인은 많지 않다. 최근의 한 표본 조사(이가옥 외, 1994)에 의하면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가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은 응답자의 80~90%나 되었다. 게다가 급속한 현대화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이 혼재하는 가운데 현대사회의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일반인들과 노인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의 적합한 역할 모델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노인들도 역시 “역할없는 역할(roleless role)”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리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은 친구나 친척 방문, TV나 라디오 시청, 집안일, 장기나 화투놀이, 단순한 잡담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며 노인의 심리사회적 욕구에 맞고 연장된 생명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다.

(2) 재취업의 어려움 : 재취업은 노령기의 역할 상실과 여가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1993년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취업노인은 37.0%이지만 이들 가운데 60%는 농림어업 분야 종사자이고, 취업노인들 가운데 75%는 비임금으로 일하고 있으며, 임금취업자 가운데 60%만이 정규임금 노동자이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정규임금 노동자는 약 6%에 불과하다. 현재 60세 이상의 취업노인들 가운데 70%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고, 비취업 노인들 가운데 30%는 취업을 원하고 있다(김영모, 1989;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일본총무청장관관방노인대책실, 1991; 이가옥 외, 1993; 이가옥 외, 1994). 많은 노인이 재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재취업은 쉽지 않은 것 같다. 한 고령자취업알선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1년간의 구직신청자 중 약 40%만 취업을 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60~70%는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노인복지회, 1995).

(3) 여가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의 미비 :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는 충족될 것이므로 노인들은 연장된 노령기에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의 실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점차로 여가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내려고 할 것이다. 필자(최성재, 1992)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래

에 노인이 될 사람들은 여가문제를 주요한 노인문제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여가를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내려는 욕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가시간을 가치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준비와 사회적 프로그램이 그 대책이 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비노인층 가운데 여가활동을 건전하게 보내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노후의 여가활동을 노후에 가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최성재, 1992) 특별한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한 장래의 노인세대들이 개인적인 준비로 여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또한 현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노인세대들의 여가활용에 대한 것을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이 없는 한 노인들은 연장된 노령기를 가치없이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생물학적으로 생명은 연장되겠지만 그 연장된 생명은 별로 인간다운 삶이 되지 못하고 말 것이다.

4)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

(1) 가정에서의 소외와 갈등 : 현대화 관련 요인들, 세대간 교육수준의 차이와 이에 따른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는 부모자녀간의 대화의 기회를 줄이고 노인을 가족과 집안일의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특히 고부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핵가족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지리적인 거리까지 멀어져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만남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리하여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갈등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외되고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당하게 된다.

노인들이 가정에서 겪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자녀와의 가치관의 차이와 가사결정에서의 소외, 용돈 문제 등이다(김영모, 1989). 자녀들과의 가치관 차이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동거하면서도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가족문제 상담통계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고부간 갈등의 사례들이 상담사례중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고(서울시 가정상담소, 1991 : 미간행), 60대에 있어서의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가족간의 갈등이 되고 있다(사랑의 전화, 1990). 이리하여 기혼자녀들 측에서 뿐만 아니라 노부모들 측에서도 갈등과 소외감을 미리 피하기 위하여 서로 별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본다(최성재, 1992).

(2) 사회에서의 소외 : 한국노인의 고독감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뿐만아니라 조기퇴직과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의 미비로 국가사회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느낌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중에 상당수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노후의 문제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최성재, 1992) 장래의 노인들은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사회속에서 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사회속에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고독감 : 한 표본조사(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90)에 의하면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의 22.8%는 고독감을 자주 느낀다고 했고, 25%는 때때로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본, 미국, 덴마크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빈도가 높은 것이다.

이러한 고독, 소외 및 갈등에 대한 예방적 대책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지 못할 것이고 노인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갈등과 고독감을 느끼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인문제의 주요한 한 측면이 될 것이다.

4. 노인문화의 현황과 특성

사회에는 세대별로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노인문화가 한 사회의 노인집단이 공유하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 한다면 이는 그 사회의 하위문화이다. 그리고 같은 사회의 노인문화라도 지역, 특정주거지, 사회경제적 계층, 특정 관심사 등에 따라 노인문화내의 또 다른 하위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Rose(1965)는 노인하위문화는 노인들간의 빈번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노인들은 노령기에 속해 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상과 반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노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인들끼리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에게만 특유한 노인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노인문화는 한국문화내의 노인하위문화와 한국의 노인문화내의 또 다른 하위문화 모두를 포함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의 노인문화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의 노인문화는 노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여기서 말하는 노인문화는 오히려 우리사회 노인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관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문화는 전통적인 노인문화에서 현대산업사회의 노인문화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문화가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면 이의 기초가 되는 가치관, 의미의 이해, 역할기대, 행동양태 등의 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노인문화의 현황을 몇가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노인들은 자녀와 가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조사(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4)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자녀와 가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복을 자신들의 가장 큰 행복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둘째,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문화는 집합주의적, 가족주의적, 효도적 가치관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치우쳐 있는 편이다(고영복, 1990).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아직도 노인 자신은 물론 사회도 노인에 대한 부양과 보호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노인에 대한 간호보호는 가족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가족이나 비혈연자에 의한 간호보호를 원하지 않거나 요양시설과 같이 가정밖의 장소에서의 간호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세째, 노인의 가치를 생산성의 관점에서 보려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인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고(한국개발조사연구소, 1984), 사회도 노화와 더불어 노인은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을 가지고 심지어는 정년이전의 조기퇴직을 조장하고 노인재고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네째, 노인을 의존적, 수동적으로 보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무병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노인들 자신과 사회는 노인을 원조의 대상이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리하여 노인은 받는 사람 또는 취약한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유교적 전통에 의한 연령 서열화(age-grading)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병숙, 1990) 이는 우리사회의 노인들을 더욱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섯째,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노인, 가족 및 사회는 노인이 가정의 생계유지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하여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여섯째, 노인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체면 유지적 태도나 행동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노인세대들은 유교적 가치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체면문화에 젖어있어 노인개인이나 노인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태도와 행동력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노인들은 비조직적이다. 특히 현세대의 노인들은 어떤 주장이나 행동을 노인들끼리 조직화하여 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직화에 대한 사회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 스스로 조직화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획득 가능한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노인들은 건전한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다. 현세대의 노인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식적 대중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궁핍속에서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에 헌신하여 왔으므로 여가활동을 즐길 여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것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들은 여가에 대한 사회화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화투놀이, 장기, 바둑 등의 오락을 즐기는 정도이다.

아홉째,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세대의 노인들은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 퇴직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시대와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에게 뚜렷한 역할기대도 없고 노인도 또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현대 우리사회의 노인문화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문화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노인문제로 반영되고 있어 새로운 노인문화의 정립과 육성이 요청되고 있다.

5. 주민공유공간을 통한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의 가능성과 형성방향

1)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의 가능성

문화는 간단히 정의하여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1) 어떤 집단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 (2) 상징적인 기호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징, 의미, 인지적인 개념들의 체계 (3) 생태계 및 자원과 관련된 생존적 적응전략의 하나로 이해된다

(Rapoport, 1980). 이러한 문화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형성될 수 있다(Anderson & Carter, 1990).

(1) 생물적 조직과 유전적 환경을 포함한 신체적 존재인 인간 개인이 있어야 한다.

(2) 개인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상자아(looking glass self)가 되고 자신을 객관화시켜 투영할 수 있는 일반화된 타자들(generalized others)이 될 수 있는 타인들이 있어야 한다.

(3) 자연환경과 인간이 만든 도구나 물건을 포함한 물질적 세계가 있어야 한다.

(4) 언어, 관습, 제도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형성된 의미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집단주거의 주민공유공간에는 집단주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들이 존재하고, 개인들이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는 타인들로서 주거단지내의 이웃사람들이 존재하고, 개인들이 생활하는 물리적 시설인 주거시설과 그 내에 여러가지의 일상생활 도구들이 존재하고, 또한 주거단지내의 거주자가 의미를 전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언어와 공유공간사용의 규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집단주거의 공유공간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유공간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하위문화인 노인문화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2) 새로운 노인문화 형성의 방향

집단주거에서 주민공유공간을 통하여 노인문화를 새로이 형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노인문화의 방향은 전반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노인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이 형성해 나가야 할 노인문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나치게 가족의존적으로 치우쳐 있는 가족주의나 효도적 가치관을 사회의존적인 면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족의 구조는 핵가족화와 소출산의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가족의 보호기능도 약화되고 있는 만큼 이웃간의 상부상조에 의하여 가족기능을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 문제와 의료비 문제는 제도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그러한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2) 노인 스스로 자신이 가치있고 생산성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취업훈련을 받거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노인이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가능하면 따라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이 주거단지의 동료노인이거나 비노인층을 위해 상부상조하거나 자원봉사하는 등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이나 재취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은 과거에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였기 때문에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현재에도 가정과 사회에 주면서 받는 상호교환적인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들 스스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이해와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도록 노력하고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이 조직화하여 사회와 국가에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을 요청하는 태도를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6) 노인들은 노인들끼리의 합의를 도출하여 자신들의 역할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특히 건전한 여가문화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노인문화의 형성방향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노인문화형성의 바람직한 목표로 제시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단지의 주민공유공간을 이용하는 노인과 비노인층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노력으로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 단체나 사회단체의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서비스는 바로 사회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노인문화 형성의 중요성

위에서 현대 우리사회의 노인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어 긍정적인 면으로 새로운 노인문화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새로운 노인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노인문제 해결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노인문제는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역할상실과 여가 문제 (4)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 등으로 다양하고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회변동(social change) 내지는 사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도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해져야 하지만 한편 개인적, 가족적 및 지역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책도 보완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집단주거 단지의 선정, 건설, 그 내부의 공유공간 확보 등은 국가의 주택정책 내지는 사회정책으로 상당부분 계획되고 통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또한 주거단지 주민 개인, 가족 및 단지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속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진복지국의 경험에 의하면 노인문제에 따라 그 해결의 주체가 국가이거나 아니면 국가, 가족, 지역사회의 2자 또는 3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문제와 건강보호의 의료비 문제는 사회보험제도(노령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 등)와 공적부조제도로 해결하고, 노인의 간호보호 문제, 역할 상실과 여가문제,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의 문제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의 책임을 분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이러한 해결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노인문제의 해결방향에서 보면 노인문제 중에 주민공유공간의 확보와 이용을 통하여 노인의 간호보호 문제, 역할상실과 여가 문제,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나 상당한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간호보호문제는 이웃간의 상부상조적 자원봉사, 단지내의 탁노 서비스 등으로 가능하고, 역할 상실과 여가문제는 단지내의 노인정 또는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고독과 소외와 갈등의 문제도 이웃간의 상부상조(자조집단적 문제해결), 공동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동체 의식의 강화

우리국민은 전통적으로 지연, 혈연 또는 학연에 근거하여 상부상조하는 관습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나그네에 대한 원조는 거의 행하지 않았고 현대사회에 들어 와서야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 대한 원조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대의 사회복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 일부를 나누는 것이 제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제도화 될수록 그 사회는 공동체 의식이 발전하게 된다. 지난 30여년간 도시화하면서 이웃간의 상부상조의 정신도 도시사회의 익명성에 의하여 파괴되어 왔는데 주택단지의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한 노인문화의 형성은 이웃에 대한 상부상조정신을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단지 내지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문화는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3) 가족 기능상의 약점의 보완

주민공유공간을 통한 노인문화의 육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단독세대나 3세대 동거세대의 가족기능상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공유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노인세대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 그리고 3세대 동거세대간에 상부상조할 수 있고 또한 주거단지내의 탁노시설 등 이용을 통하여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문화의 육성은 중요성을 갖는다.

4) 노인의 역할규범 형성

노인문화는 노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현대 우리사회의 노인들은 조기의 정년퇴직, 급속한 가치관의 변화 및 가치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규범을 형성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주거단지내의 비노인층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역할규범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노인문화의 형성은 중요성을 갖게 된다.

5)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의 촉진

주거단지내에 탁노소 서비스나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면 노인들의 이해와 주민들의 이해가 증진되어 노인들이나 가족들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결국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인문화의 육성은 바람직하다.

6) 노인의 수용시설이나 병원 입원의 예방 또는 지연

모든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인을 가족과 함께 보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단지내의 주민간의 상부상조와 적절한 재가 서비스 이용은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 주어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요양시설과 같은 곳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거나 입소를 지연시켜 준다. 이와같이 주민공유공간을 통한 노인문화 형성은 노인복지 수용시설이나 병원 입원을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노인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노인의 공간영역 통제력 유지 및 향상

사람들은 사적 공간인 자기집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반면에 잠재적인 위협이 커지게 된다고 한다(Taylor & Brower, 1985). 즉 자기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을수록 그 장소를 오가는 사람과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공간에서 생활상의 결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많은 긴장과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노인이 될수록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노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만남의 장소, 각종 편의시설, 물건구입처, 사회적 서비스 제공장소 등이 가능하면 자기집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공유공간을 통한 노인문화의 발전은 노인으로 하여금 공간영역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하여 결국은 노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안전과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공유공간을 확보하여 노인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 주민공유공간의 노인문화 형성에의 기여

앞의 문화형성의 조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공유공간은 노인문화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인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노인과 관련된 주민공유공간으로 집단주거단지내에 설치 가능한 것을 우선 살펴 보고 그것들이 노인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1) 주민공유공간의 유용성과 노인문화 형성에의 기여

현재까지의 집단주거단지는 일반적으로 공유공간으로 노인정과 놀이터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는 아파트 단지의 단위 주택들이 모여있는 집합(congregate)의 성격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미래의 집단주거단지는 다양한 공유공간이 아파트 건물내부와 단지 중앙과 단지 입구에 확보되어 삶을 공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유집합(collective)의 성격을 가진 주거단지로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이연숙, 1995). 공유공간은 집단주거단지의 주거주자가 노인이나, 노인과 일반인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나(노인이 포함될 수도 있음)에 따라 노인에게 있어서 그 유용성이 달라질 것이고, 또한 같은 공유공간도 종류에 따라서도 노인에게 있어서 그 유용성이 달라질 것이다. 여기서는 미래의 노인용 공유집합주택을 생각하고 설치가능한 공유공간을 조사한 것 가운데서 노인에게 가장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부터 중요한 것 30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성은 노인이 자주 만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용이성과 이용기회의 순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주민공유공간이 노인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순위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노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용의향 조사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열된 30개는 노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공유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 | | | |
|-------------|-------------|-------------|
| 1. 로비 | 11. 헬스크럽 | 21. 베드민턴장 |
| 2. 공동식당 | 12. 수영장 | 22. 다목적 행사실 |
| 3. 노래방 | 13. 당구장 | 23. 산책로 |
| 4. 목욕탕/사우나 | 14. 실내정원 | 24. 소극장 |
| 5. 게이트볼장 | 15. 녹지공간 | 25. 컴퓨터실 |
| 6. 독서실(도서실) | 16. 이발소/미장원 | 26. 병원 |
| 7. 공동바(휴게실) | 17. 소규모작업장 | 27. 약국 |
| 8. 비디오 가게 | 18. 취미실 | 28. 서점 |
| 9. 커피 전문점 | 19. 우체국 | 29. 은행 |
| 10. 문화센터 | 20. 한의원 | 30. 탁구장 |

2) 노인과 관련된 공유집합주택의 종류

미래의 공유집합주택은 노인용, 3세대용, 일반용(노인포함) 공유집합주택으로 다양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3세대 동거형주택을 선호하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노인 인거형(자녀 인거형)을 선호하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와는 완전히 분리된 노인용을 원하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의 노인들은 문화적 전통에 따른다는 생각보다는 합리성과 편리성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은 장단점이 있을 뿐이고 만족도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리고 생활의 경험에 따라 평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 결론

이상에서 현재 및 장래의 노인문제와 현재의 노인문화 현황을 검토해 본 후 노인문화 형성의 조건과 노인문화 형성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노인문화 형성의 중요성과 공유공간의 노인문화 형에의 기여정도를 예측해 보았다.

노인문화는 단순히 집단주거단지에서 공유공간만 마련한다고 해서 자연히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급속한 산업화과정에 있으면서 고령화사회를 곧 맞이하게 될 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노인문화를 의도적으로 형성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공유공간을 통한 노인문화 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인들의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고 욕구의 충족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공유집합주택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주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인주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공유공간이 생활문화 육성에 미치는 효과

박 인 덕(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본부장)

1. 전체종합

주제발표자는 200년대의 주거모델을 예측하는 주요개념으로 지역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문화적 주체성 확립에 근거하여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주택은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확산 뿐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공유기회 제공, 유희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적 구심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주택정책의 핵심은 소유개념에서 공유공간을 지닌 거주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인에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지향성이 높은 민족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라도 주거공간의 공유화를 통해 한국인의 공동체적 성향을 회복할 수 있음도 주제 발표자는 거듭 강조하면서 미래 주거공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동주택단지는 문화적으로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공간이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가사노동의 경감과 공동육아, 그리고 여가 및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공간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는 것. 세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문화공간의 절대적 필요성 등이다.

2. 각 패널토의에 대한 요약

이같은 제안에 대해 세분의 토의자가 보완하여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족문화 및 이웃공동체 생활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1) 앞으로의 가정과 가정생활은 다양화, 개성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주체성이 결여된 다양화와 개성화는 오히려 혼동과 이기적 과소비적 성향이 나타날 것이며 컴퓨터 작동의 지식과 능력이 결여되고 빠른 정보에 누락될 경우 상당한 지체와 좌절을 가져올 것이다.

(2)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가족문화는 첫째,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는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사랑과 동반자적 관계, 공동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우리”라는 도덕적 인간화가 이루어지는 집단추구이다. 둘째, 사회가 개방화, 개인화 될수록 인간적 사랑과 유대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족문화 형성. 세제, 한국적 가족문화의 확립을 위해 가족전통문화와 규범을 현대생활에 재조명해 보는 작업이다.

(3) 주민공유공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예술과 스포츠의 생활화, 생애교육, 가족상담, 소비자상담의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가족문화와 지역문화가 연계된 공동체 생활문화육성과 맞벌이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가족기능 보충적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4) 주민공유공간의 활용에 있어 공간환경적 측면, 프로그램운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공간환경을 주민들이 기존 동사무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문화센터, 가족생활지원센터, 행정센터 등이 주민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체의 행정구심점은 구청과 동단위의 지역센터가 생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운영으로 프로그램전문가 양성과 시간제 유급 근무자, 자원봉사자의 활용으로 노인생활지원, 취업주부지원, 저소득층 가정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으로는 신규 주택단지 개발시 주민지원센터 설치법이나 기존 주택지역의 주민지원센터

육성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선정한 후 정책적으로 운영하며, 지자체 실시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지역공동체 문화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국여성문화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1) 당면한 여성문제의 과제로 첫째, 도시의 저임금 저소득 근로여성의 복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의 고학력 전업주부들의 여가이용이 자기존중과 자립심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성과도 있으나 부유층의 유희시간 소비로 인한 낭비문화 전락이 우려된다. 셋째,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정책진단의 안목부족이다.

(2)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공유공간은 직업여성의 자녀교육과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할 탁아소, 공부방, 도서관, 공동놀이방, 공동세탁실, 공동취사실 등이 있을 것이며, 여성들의 문화공유공간으로 정보화랑, 휴게실, 실내정원, 다목적 행사실, 체육시설공간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 근로여성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 지역문제를 논의할 공동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겠다.

(3) 이상의 제안같이 주민공유공간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역할지움을 통한 자아실현과 지역사회발전 및 여성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노인문화 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1)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더욱 급속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들의 가족형태를 별거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노인전용주택의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주택단지 형성을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바람직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노인문화를 의도적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공유공간을 통한 노인문화형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앞으로 노인들 스스로 주거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할 것이고 욕구의 충족도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공유집합주택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3세대 동거형주택, 노인인거형(또는 자녀인거형), 노인전용 등.

(4) 노인문제의 해결방향에서 보면 주민공유공간의 확보와 이용을 통하여 긍정적인 면에서의 새로운 노인문화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노인문제인 경제적 문제, 건강보호 문제, 역할상실과 여가문제, 고독 소외 및 갈등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인의 간호보호는 이웃간의 상부상조적 자원봉사, 단지내의 탁노서비스 등으로 가능하며, 역할상실과 여가는 노인정,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독과 소외와 갈등도 이웃간의 상부상조, 공동여가활동 및 취미 활동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인훈을 현장에 한국훈을 세계에